2017년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차 례

머 리 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2017 년은 자력자강의 동력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사에 불멸의 리정표를 세운 영웅적투쟁과 위대한 승리의 해였습니다.》

주체 106(2017)년은 자력자강의 동력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사에 불멸의 리정표를 세운 영웅적투쟁과 위대한 승리의 해였다.

조성된 정세와 전진도상에 가로놓인 최악의 난관속에서 조선로동당은 인민을 믿고 인민은 당을 결사옹위하여 역경을 순경으로, 화를 복으로 전환시키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눈부신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해에 이룩한 모든 성과들은 조선로동당의 주체적인 혁명로선의 승리이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친 조선인민의 영웅적투쟁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도서 《2017 년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에서는 주체 106(2017)년에 사회주의강국건설과 조국수호를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어오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을 《로동신문》에 실린 자료에 기초하여 서술하였다.

신 년 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새해에 즈음하여 전체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에게 보내시는 력사적인 신년사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신년사에서 지난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조선인민이 이룩한 빛나는 승리에 대하여 긍지높이 총화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기적의 2016 년 한해를 통하여 비상히 앙양된 혁명적기세를 더욱 고조시켜 뜻깊은 올해에 당 제 7 차대회 결정관철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함으로써 인민의 리상과 꿈을 이 땅우에 찬란한 현실로 꽃피워야 합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신년사에서 첫째로, 이해 당 제 7 차대회 결정관철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에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무엇보다먼저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을 다그치기 위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우선 국가경제발전 5 개년전략수행에 총력을 집중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을 다그치자!》**라는 전투적구호를 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앞세우며 전력과 금속, 화학공업부문이 기치를 들고나갈데 대하여 밝히시였다. 또한 석탄공업과 철도운수부문, 기계공업부문, 경공업과 농업, 수산업, 건설부문 등 국가경제발전 5 개년전략수행에서 나서는 과업들을 밝히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또한 교육과 보건, 체육, 문학예술을 비롯한 문화분야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혁명적앙양을 일으켜 문명국건설을 앞당겨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과학교육의 해인 이해에 전국가적, 전사회적으로 과학교육시설과 환경을 일신시키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켜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또한 사회주의정치군사진지를 불패의 보루로 더욱 튼튼히 다져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일심단결을 더욱 강화하고 군력강화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며 국방공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다음으로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을 다그치기 위한 방도를 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당조직들과 근로단체조직들의 역할을 높이며 일군들의 사업기풍과 일본새를 혁명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신년사에서 둘째로, 이해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북과 남사이의 첨예한 군사적충돌과 전쟁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며 온 민족이 뜻과 힘을 합쳐 거족적통일운동의 전성기를 열어나가며 민족의 통일지향에 역행하는 내외반통일세력의 도전을 짓부셔버릴데 대하여 밝히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신년사에서 셋째로,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대외정책적립장에 대하여 엄숙히 천명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는 앞으로도 자주, 평화, 친선의 대외정책리념에 충실할것이며 자주성을 옹호하는 나라들과 선린우호,

친선협조관계를 확대발전시키고 진정한 국제적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것이라고 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신년사의 마지막부분에서 자신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믿고 전체 인민이 앞날을 락관하며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를 부르던 시대가 지나간 력사속의 순간이 아닌 오늘의 현실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헌신분투할것이며 티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인민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인민의 참된 충복, 충실한 심부름군이 될것을 새해의 이 아침에 엄숙히 맹약한다고 하시였다.

1. 사회주의정치사상진지를 불패의 보루로 더욱 튼튼히 다지시기 위하여

1) 전체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의 일심단결의 위력과 백절불굴의 전투적기상을 만천하에 힘있게 과시

(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5 돐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4 월 15 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5 돐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를 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륙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적위군명예위병대 대장의 영접보고를 받으신 후 조선인민군 륙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적위군명예위병대를 사열하시였다.

열병시작을 알리는 신호나팔소리가 광장에 울려퍼지였다.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김정일**장군의 노래》가 장중하게 주악되는 가운데 21 발의 례포가 발사되였다.

광장에 《수령님과 장군님은 함께 계시네》의 노래가 장중하게 주악되는 속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을 모신 초상기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을 모신 초상기가 조선인민군 장령, 군관들의 호위를 받으며 들어섰다.

조선인민군 륙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적위군명예위병대와 전체 열병대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기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기를 우러러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였다.

열병행진이 개시되자 그이께서는 《만세!》의 합성을 올리며

나아가는 열병종대들에 손을 높이 드시여 뜨거운 답례를 보내시였다.

사회주의조선의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시며 강대성의 상징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결사옹위하는 성새, 방패가 될 억척불변의 신념의 뢰성인양 열병대원들이 울리는 힘찬 발구름소리가 온 광장에 메아리쳤다.

이어 《무장으로 받들자 우리의 최고사령관》의 군악이 진감하는 속에 백두산혁명강군의 불패의 군력을 시위하며 기계화종대들의 장엄한 철의 흐름이 시작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05 돐경축 열병식에 이어 평양시군중시위가 시작되였다.

군중들은 주체의 광휘로운 빛발로 조국과 인민의 존엄을 민족사상 최고의 경지에 올려세우시고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여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과 경모의 정으로 가슴들먹이였다.

시위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고 준엄한 혁명의 년대마다 미증유의 변혁을 창조하여온 주체조선의 영광찬란한 행로를 긍지높이 펼쳐보이며 조선로동당 제 7 차대회가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 개년전략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전민총돌격전에서 보다 큰 기적적성과들을 창조할 철석의 의지에 넘쳐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자기 힘을 굳게 믿고 보다 큰 승리를 향하여 폭풍노도쳐나가는 조선인민의 앞길을 막을자 이 세상에 없음을 보여주며 주석단앞을 지나가는 시위참가자들의 기세는 더욱 고조되였다.

군중시위가 끝나자 또다시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하늘땅을 진감하였으며 경축의 축포가 터져오르고 고무풍선들이 날아올랐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주석단로대에 나오시여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군중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05 돐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만대에 빛내이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향해 질풍노도쳐나갈 전체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의 일심단결의 위력과 백절불굴의 전투적기상을 만천하에 힘있게 과시하였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 13 기 제 5 차회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 13 기 제 5 차회의가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회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회주의강국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국가경제발전 5 개년전략수행의 확고한 전망을 열어나가며 전민총돌격전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소집되였다.

회의에서는 국가경제발전 5 개년전략수행을 위한 내각의 주체105(2016)년 사업정형과 주체106(2017)년 과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체 105(2016)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주체 106(2017)년 국가예산, 전반적 12 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한 법령집행총화,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회선거, 조직문제를 의안으로 결정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 13 기 제 5 차회의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령도따라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높이 일심단결의 불가항력적위력과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공화국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힘차게 진군해나아가는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고무추동하였다.

2) 당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1)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7 기 제 2 차전원회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7 기 제 2 차전원회의가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전원회의를 지도하시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첫째 의정으로 조성된 정세에 대처한 당면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첫째 의정에 대한 보고를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보고에서 오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둘러싼 복잡한 국제정세와 제기되는 중대한 문제들에 대하여 분석평가하시고 조성된 정세에 대처한 조선로동당의 당면활동과 경제발전방향, 그 실현을 위한 전략적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해 제국주의반동세력들의 가증되는 제재속에서도 나라의 과학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으며 그 위력으로 인민경제가 장성한데 대하여 평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여 경제강국건설의 활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조선로동당의 원칙적립장과 혁명적대응전략을 밝혀주시고 자주의 기치, 자력갱생기치드높이 자기의 힘을 더욱 강화하여 적들의 무모한 핵전쟁도발책동과 비렬한 제재압살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릴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당과 인민대중의 일심단결의 위력을 더욱 튼튼히 다져나가며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경제강국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킬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당의 혁명적로선과 전략을 실현하기 위하여 각급 당조직들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백방으로 강화하는것을

중요한 방도로 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오늘의 정세는 준엄하며 조선인민앞에는 시련이 막아서고있지만 조선로동당은 전체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고있기에 언제나 배심이 든든하며 그 어떤 천지지변속에서도 자주적인 로선을 확고히 견지하며 백승의 길을 열어나갈것이라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튼튼한 자립적경제토대가 있고 조선로동당이 키운 과학자대군과 조선로동당의 혁명정신으로 무장된 전체 인민과 인민군장병들, 자력갱생의 투쟁전통이 있기에 주체의 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라고 하시면서 모두다 당중앙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혁명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투쟁해나아가자고 호소하시였다.

(2) 조선로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

온 나라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조선로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가 평양에서 성대히 개막되였다.

대회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는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존엄과 령도적권위가 비상히 높아지고 공화국의 전략적지위와 무진막강한 국력이 힘있게 과시되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소집되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 개회사를 하시였다.

개회가 선언되자 《조선로동당 만세》의 노래가 주악되였다.

대회에서는 보고와 토론들이 진행되였으며 대회참가자들은 주체혁명의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의 앞장에서 진군나팔소리를 더욱 높이 울리며 돌격로를 열어나가는 혁명의 기수, 투쟁의 기수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갈 굳은 결의들을 다짐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대회에서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당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을 크나큰 격정속에 받아안은 대회참가자들의 가슴가슴은 전당강화발전의 새로운 전성기를 펼쳐주시고 조선로동당을 백전백승의 한길로 이끄시여 주체혁명의 전진속도를 비상히 높여나가시는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심과 다함없는 흠모의 정으로 세차게 끓어번지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폐회사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의 말단기층조직인 당세포를 당의 사상과 위업을 받들어나가는 전위조직으로 튼튼히 꾸리고 대중의 앞장에서 당과 사회주의조국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여온 대회참가자들을 열렬히 축하하시고 그들과 함께 12월 24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제 5 차 세포위원장대회와 강습, 참관을 비롯한 모든 일정을 끝마치고 전투초소로 떠나는 당세포위원장들과 함께 공훈국가합창단, 모란봉악단 축하공연을 보시였다.

그이께서는 당세포위원장들이 조선로동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며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위업을 추동해나가는데서 **김일성-김정일**주의당의 초급정치일군으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다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3) 당의 혁명전통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시려고

(1) 혁명전통교양의 대전당으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새로 개건된 조선혁명박물관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색조각상들을 정중히 잘 모시였다고, 특히 선군혁명령도의 상징인 철령에 서계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색조각상을 생전의 모습그대로 정말 잘 형상하였다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직접 뵈옵고 가르치심을 받는것만 같다고 격정에 겨워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혁명의 매 년대기별로 꾸려진 호실들에 정중히 모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사진문헌들과 전시된 사적자료들,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보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력사를 내용별로, 시기별로 직관적으로 생동하게 보여줄수 있게 학술체계구성을 잘하였다고, 전시형식과 조명효과에 이르기까지 모든것이 마음에 든다고 기뻐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과 전우관》에 위대한 수령님들과 혁명전사들사이의 동지적관계가 얼마나 숭고하고 열렬한것인가를 력사적사실로 보여주는 감동적인 자료들이 많다고, 동지애로 개척되고 동지애로 승리하여온 조선혁명의 빛나는 력사를 잘 알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5 돐을 맞이하는 뜻깊은 시기에 당원들과 인민들, 인민군장병들의 가슴마다에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력사와 혁명업적을 깊이 새겨주는 혁명전통교양의 대전당인 조선혁명박물관이 훌륭히 개건된것은 거대한

력사적사변으로 된다고 하시면서 조선혁명의 전로정이 응축된 조선혁명박물관은 명실공히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박물관,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박물관이라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력사이자 사회주의조선의 력사이라고, 조선혁명박물관을 돌아보면 조선혁명의 발전로정을 잘 알수 있고 우리가 걸어갈 행로가 눈앞에 선히 보인다고 하시면서 조선인민의 사상정신적기둥이며 등대인 조선혁명박물관은 국보중의 국보, 혁명의 교과서이라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혁명전통은 혁명의 명맥을 이어주는 피줄기이며 조선혁명의 만년초석이라고 하시면서 조선혁명박물관을 가지고있는것은 조선로동당과 인민의 크나큰 자랑이고 긍지이며 박물관에 보존전시된 모든 사적물들과 자료들은 대대손손 길이 전해가야 할 가장 귀중한 재보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혁명전통교양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려는것은 조선로동당의 확고한 의지라고 하시면서 혁명의 대가 바뀌고 새 세대들이 조선혁명의 중진들로 자라고있으며 조선인민의 앞길을 막아보려고 미친듯이 날뛰는 원쑤들의 발악적인 책동이 악랄해지고있는 오늘날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는것은 혁명의 승패와 관련된 중차대한 문제이라고, 당원들과 인민들, 인민군장병들을 조선로동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그들이 어떤 난관에도 굴하지 않고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혁명박물관이 내용과 형식, 규모에 있어서 세계에 둘도 없는 최고의 혁명박물관으로, 혁명전통교양의 대전당으로 개건되였다고 하시면서 조선혁명박물관을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위대한 혁명력사와 불멸의 혁명업적이 집대성된 대국보관으로 전변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한 일군들과 건설자들, 지원자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조선혁명박물관의 일군들과 강사들이 혁명전통교양의 중요한 초소에 서있다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조선로동당의 혁명력사와 령도업적을 끝없이 빛내여나가는 길에서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자기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2)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오르시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오르시였다.

나라의 일만산악을 거느린 조종의 산 백두산은 그 웅건장중한 뫼부리에 백설을 흩날리며 자기의 위대한 주인을 또다시 맞이한 기쁨으로 령묘한 정기를 내뿜고있었다.

산같이 쌓인 강설을 헤치시고 찾아오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맞이한 백두산은 눈보라치는 12 월에 아직 그 누구도 올라와보지 못한 백두산정점에까지 오르신 그이앞에 만년장설을 이고 솟아있는 숭엄한 자태를 한껏 드러내며 엄동설한에 성산이 생겨 처음 보는 류달리 쾌청한 날씨를 펼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백두산에 자주 올라와보았지만 오늘처럼 한겨울에 봄날에도 보기 드문 좋은 날씨는 처음이라고, 어찌나 날씨가 맑은지 천지호반의 봉우리들이 눈앞에 가까이 다가선듯이 더 선명하게 보인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의 안광에는 백두산의 장엄한 기상에서 모질게 광란하는 행성의 어지러운 바람에도 흔들림없이 푸르싱싱한 기백으로 용감무쌍히 전진하는 사회주의강대국의 모습을 안아보시는 위인의 숭엄한 빛발이

뜨겁게 흐르고있었다.

언제나 백전백승의 의지를 안겨주며 그 어떤 역경도 순경으로 만드는 영웅적배심을 키워주는 기적과 행운의 성산 백두산에는 무한한 담력과 배짱을 지니시고 오늘의 승리에로 조선혁명을 억세게 이끌어오신 천하제일명장의 전설적기상이 뜨겁게 넘쳐흘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혁명생애가 깃들어있고 필승불패하는 조선의 정신적기둥이며 백절불굴하는 사상적힘의 뿌리인 백두성산을 혁명전통교양의 거점으로 더 잘 꾸리는데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백두산사적비와 교양마당을 혁명의 성산의 품격에 어울리게 더 잘 꾸리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친필 **《혁명의 성산 백두산》**의 글발을 어느때, 어디서 보아도 가장 잘 보일수 있도록 무게있고 정중하게 더 잘 모셔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백두산을 찾아오는 답사자들의 편의를 위해 백두역주변에 답사자려관을 새로 잘 건설하며 백두산의 전경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여러 장소에서 사진도 찍고 휴식을 할수 있도록 편리한 시설들도 잘 꾸려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만난을 과감히 뚫고 사회주의승리의 진군로를 힘차게 열어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흰눈덮인 12 월에 백두산정에 오르시여 새기신 뜻깊은 자욱은 조선을 세계가 우러러보는 천하제일강국으로 더 높이 떠올리실 원대한 웅지와 주체조선의 앞길에 최후승리의 려명을 앞당겨오신 력사적인 행보로 빛을 뿌릴것이다.

2. 인민군대가 사회주의건설에서 선봉에 서도록

1) 조선인민군 제4차 청년동맹초급단체비서열성자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도 찍으시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제 4 차 청년동맹초급단체비서열성자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청년중시사상의 적극적인 옹호자, 선전자, 관철자가 되여 군인들을 영웅적위훈에로 불러일으키며 조국의 천리방선초소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주요전역들에서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떨쳐가고있는 인민군대안의 청년동맹초급단체비서들과 청년일군들을 열렬히 축하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대회참가자들이 전군**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 요구에 맞게 인민군대안의 청년동맹초급단체들을 혁명의 불길속에서 정예화된 전위대오로 만들며 조선청년운동의 선봉에서 시대와 혁명이 부여한 성스러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2) 조선인민군 건설부문열성자들과 함께 기념사진도 찍으시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건설부문 열성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제일기수, 돌격대답게 사회주의대건설의 격전장마다에서 군인정신, 군인본때, 군인기질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영웅조선의 건설신화들을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창조해나가고있는 조선인민군 건설부문 열성자들을 열렬히 축하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그들이 당의 웅대한 구상과 전투적호소를 받들고 주체건축예술의 미래와 사회주의문명의 높이를 보여주는 기념비적창조물들을 단숨에의 공격정신으로 수많이 일떠세움으로써 사회주의조선의 무궁무진한 국력과 발전잠재력, 강용한 기상을 만천하에 떨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건설부문 열성자들이 앞으로도 백두산혁명강군의 자랑스러운 승리전통, 애국전통을 굳건히 이어 사회주의대건설전투에서 불타는 충정과 대중적영웅주의를 더 높이 발휘하여 조국번영의 새시대, 최후승리의 진격로를 앞장에서 열어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3) 4월 22일태천돼지공장을 찾으시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과학화, 현대화, 집약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4월 22일태천돼지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공장의 전경이 참 멋있다고, 한폭의 그림같다고, 아담하고 정갈하면서도 깨끗하고 시원하게 건설을 잘했다고, 위치도 좋고 건축물의 조형화, 예술화가 완벽하게 실현되였다고 하시면서 주변환경이 마음에 든다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건설정형과 관리운영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공장에서 우량품종의 돼지들을 더 많이 육종해내며 종자확보와 보존대책을 철저히 세울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공장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과학화, 현대화, 집약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4월 22일태천돼지공장은 볼수록 희한한 멋쟁이공장, 보기만 해도 마음이 흡족한 공장, 축산기지의 본보기라고 하시면서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당의 축산정책을 높이 받들고 이악하게 투쟁함으로써 더 많은 돼지고기와 가공품을 생산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4) 인민무력성 기공구, 마감건재품 및 과학기술성과전시회장을 찾으시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무력성 기공구, 마감건재품 및 과학기술성과전시회장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전시품들을 보시면서 2 년전의 기공구전시회보다 많이 달라졌다고, 건설의 번영기에 펼쳐진 류다른 풍경이라고, 건설부문에서 대혁명이 일어났다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당의 대건설구상을 앞장에서 받들어 려명거리건설을 비롯한 주요전구마다에서 힘있는 부대, 기술있는 부대의 위용을 남김없이 떨친 인민군군인들의 불타는 애국충정과 재능이 어려있는 건설장비들과 건재품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보아주시면서 그들의 수고를 높이 치하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전시회장에 전시된 창안품들은 조선사람들의 체질에 맞고 다루기 편리하게 만들어졌다고, 건재 및 건구류들과 가구비품들의 가지수도 많고 질도 높다고 하시면서 당의 의도대로 건재품의 국산화, 다양화, 다종화, 다색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그이께서는 대중의 힘과 지혜는 무궁무진하며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다 만들어낼수 있다고, 건설설비들과 자재들을 다른 나라에서 사다 쓸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 식으로 창안제작하기 위한 사업을 줄기차게 밀고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사회에서도 인민군군인들의 투쟁기풍, 일본새를 따라배우도록 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건설의 대번영기를 더욱 빛내여나가는데서 이번 전시회가 매우 중요한 계기로 된다고 하시면서 건설부문에서 나서는 구체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5) 1116호농장을 찾으시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1116 호농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농장에서 육성해낸 다수확품종의 농작물들을 보신 다음 새로 건설한 연구소를 돌아보시였다.

그이께서는 연구소의 곳곳을 돌아보시면서 첨단농업과학연구기지답게 건설을 잘하였다고, 설계와 시공도 만점이며 흠잡을데가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연구소에 농장에서 지금까지 연구하여 시험재배에 성공한 갖가지 농작물들을 전시해놓았는데 정말 볼만 하다고 하시면서 이 농장에는 내놓고 자랑할만 한 성과들이 대단히 많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현대적인 연구소가 일떠섬으로써 이 지구의 면모가 일신되였다고, 연구사들이 대단히 좋아하며 더 좋은 연구성과로 당의 배려에 보답하겠다고 한다는데 자신께서도 기쁘다고, 이곳 농장의 연구사들을 위해서라면 아까울것이 없다고 하시면서 대를 두고 잊지 못할 은정깊은 배려를 또다시 베풀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가 믿을것은 과학기술의 힘이며 우리가 의거해야 할것은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의 명석한 두뇌이라고 하시면서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관철하자면 일군들이 농업과학연구부문을 추켜세우고 과학자, 기술자들을 우대해주며 그들의 창조적열의를 적극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새로 건설한 온실과 농작물시험 및 재배포전 등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육종 및 육성사업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1116 호농장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경지면적이 제한된 조선의 자연지리적특성과 불리한 날씨조건에서도 높고 안전한 소출을

낼수 있으며 병해충견딜성이 강하고 생육기일이 짧은 다수확품종의 농작물들을 육종재배함으로써 농사에서 종자가 기본이라는 당의 종자혁명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실천으로 증명하였다고 하시면서 모든 단위들에서 이들의 경험을 따라배워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농장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농업전선은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이며 경제강국건설에서 힘을 집중하여야 할 주타격방향이라는것을 항상 명심하고 다수확품종의 종자육종과 육성사업을 더욱 힘있게 벌려 당 제 7 차대회가 제시한 알곡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하는데 적극 이바지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농장앞에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3.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도록

1) 고경찬영웅소대원들에게 축하전문을 보내주시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년간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완수한 검덕광업련합기업소 금골광산 4.5 갱 고경찬영웅소대 동지들에게 축하전문을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당과 혁명에 무한히 충실한 조선로동계급의 억센 기상과 투지를 남김없이 발휘하여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을 맞으며 년간광물생산계획을 101.5%로 완수하는 놀라운 기적적성과를 이룩한 검덕광업련합기업소 금골광산 4.5 갱 고경찬영웅소대 15 명 동지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뜨거운 인사를 보내시였다.

그이께서는 고경찬영웅소대 동지들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하늘같은 믿음과 사랑을 받으며 자라난 금골의 영웅광부들답게 국가경제발전 5 개년전략수행에서 관건적의의를 가지는 올해에 전민총돌격전을 힘차게 벌려 경제강국건설의 분수령을 마련할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에 화답하여 뜻깊은 광명성절과 태양절,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기념일을 계기로 광물생산고지를 앞당겨 점령하기 위한 불꽃튀는 증산돌격전을 과감히 전개하였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당은 경제강국건설의 전초선에서 난관을 박차고 용감하게 돌진하고있는 고경찬영웅소대의 혁혁한 전과보고에서 커다란 힘과 고무를 받았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과 맺은 정을 피줄처럼 간직하고 당중앙과 심장의 맥동을 같이하며 만리마시대의

새로운 신화를 창조한 고경찬영웅소대를 높이 평가하며 전투원들의 증산투쟁, 창조투쟁, 돌격투쟁을 힘껏 떠밀어준 가족소대원들과 광산의 일군들에게도 감사를 보낸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고경찬영웅소대 전투원들은 순간도 멈춤없이 더욱 분발하여 전민총돌격전의 앞장에서 질풍같이 나아가며 금골광산의 모든 갱들과 소대들에서는 영웅소대의 경험을 따라배워 보다 큰 집단적혁신의 불길로 검덕로동계급의 충정의 전통을 빛내여나가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검덕광업련합기업소 금골광산 4.5갱 고경찬영웅소대 전투원들과 전체 광산로동계급이 모두 건강한 몸으로 조선로동당 제 7 차대회가 제시한 웅대한 설계도따라 사회주의승리봉을 점령하기 위한 보람찬 총진군에서 대중적영웅주의를 높이 발휘하여 만리마기수, 만리마선구자의 영예를 지닐것을 기대한다고 하시였다.

2) 모든 힘을 경제전략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로

금성뜨락또르공장 현지지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당이 맡겨준 새형의 뜨락또르생산과제를 빛나게 수행한 금성뜨락또르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소개실을 돌아보시였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34 차례, 위대한 장군님께서 10 차례나 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고 하시면서 현지지도차수만 놓고보아도 주체적인 뜨락또르공업의 강화발전을 위해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잘 알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사상교양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 공장로동계급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체온과 체취가 곳곳마다에 어려있는 영광의 일터에서 살며 투쟁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자기들앞에 맡겨진 영예로운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공장에서 생산한 새형의 80hp 뜨락또르 《천리마－804》호들을 보시였다.

그이께서는 새파란 색으로 산뜻하게 도장한 수백대의 새형의 80hp 뜨락또르들이 즐비하게 서있는것을 환한 미소속에 바라보시면서 정말 볼만 하다고, 대단한 성과이라고, 수고들이 많았다고 거듭거듭 치하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천리마－804》호뜨락또르들이 사회주의협동전야를 꽉 메우게 하자는것이 당의 의도이라고 하시면서 새형의 80hp 뜨락또르들이 내 나라의 논과 밭을 풍요하게 가꾸어가는 모습을 그려보니 신심이

넘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몸소 뜨락또르에 오르시여 운전을 하시면서 《천리마－804》호의 성능과 기술적특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시동이 잘 걸리고 운전하기가 편리하며 기운차게 움직인다고, 외형도 미끈하고 의장품들도 마음에 들며 우리 사람들의 체질에 맞게 정말 잘 만들었다고, 세계적으로 가장 발전되였다고 하는 뜨락또르들과 당당히 견줄수 있다고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다음해 수행해야 할 뜨락또르생산과제를 주시고 공장개건현대화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금성뜨락또르공장개건현대화공사를 통하여 우리 나라 륜전기계공업발전을 적극 추동하는 또 하나의 혁명을 일으키자고 하시면서 공장개건에 필요한 대해같은 은덕을 베풀어주시였으며 인민군대의 강력한 건설력량을 파견해주시겠다는 은정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는데서 금성뜨락또르공장이 맡고있는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생산과 개건현대화투쟁에서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로력혁신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 현지지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당이 맡겨준 새형의 화물자동차생산과제를 빛나게 수행한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승리산혁명사적관과 연혁소개실,

혁명사적물보존실을 돌아보시였다.

그이께서는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위대한 수령님의 19 차례, 위대한 장군님의 9 차례의 현지지도를 받은 영광의 일터에서 일하는 한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자동차생산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길이 빛내여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에서 생산한 새형의 5t 급화물자동차들을 보시였다.

그이께서는 드넓은 주차장을 꽉 메우고 즐비하게 서있는 새형의 5t 급화물자동차들을 환한 미소속에 바라보시며 조선의 로동계급이 자기의 힘을 믿고 떨쳐일어나 만들어낸 주체조선의 자동차들이라고, 볼수록 힘이 나고 흐뭇하다고 하시면서 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에게 전투적인사를 보내시였다.

그이께서는 몸소 자동차에 오르시여 운전을 하시면서 5t 급화물자동차의 성능과 기술적특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은 그처럼 어려웠던 전후시기 중중첩첩한 시련을 뚫고 맨주먹으로 40 일만에 《승리－58》형자동차를 만들어낸 전세대 로동계급의 그 정신, 그 기백을 남김없이 발휘함으로써 당에서 정해준 기간에 새형의 화물자동차들을 훌륭히 생산하였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고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가 다음해 수행해야 할 화물자동차생산과제를 주시였으며 련합기업소앞에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력을 강화하자면 자동차를 자체로 생산하는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현대적인 화물자동차를 꽝꽝 생산할수 있도록 련합기업소를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개건현대화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당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애써 마련한 강유력한 공업토대가 있으며 당에 무한히 충직한 로동계급이 있기에 점령 못할 요새란 없다고 하시면서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까지 개건현대화하면 조선의 륜전기계공업발전에서 새로운 장이 펼쳐지게 될것이라고 확신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당이 제시한 개건현대화과업을 훌륭히 실현함으로써 날로 늘어나는 수송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3)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금산포젓갈가공공장과 금산포수산사업소 현지지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새로 건설된 금산포젓갈가공공장과 금산포수산사업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먼저 금산포젓갈가공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금산포젓갈가공공장의 건설정형과 생산준비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금산포지구의 능금도에 현대적인 젓갈가공공장이 훌륭히 일떠섰다고 하시면서 해당 부문의 일군들, 과학자, 기술자들이 사색과 탐구를 거듭하여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자체의 힘으로 젓갈을 공업적인 방법으로 생산할수 있는 주체적인 기술공정을 확립하는 혁신적인 성과를 이룩한데 대하여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금산포젓갈가공공장의 관리운영에서 지침으로 되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이어 금산포수산사업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혁명사적교양실, 어로공합숙을 비롯한 수산사업소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건설 및 조업준비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시원하게 뻗어간 방파제부두를 환한 미소속에 바라보시면서 마치도 비행장활주로에 서있는것만 같다고, 부두선이 자막대기를 대고 금을 그어놓은것같이 보인다고 하시며 능금도와 곰섬사이에 제방을 막는 공사가 대단히 어려웠겠는데 불과 넉달동안에 끝낸 우리 군인들의 불굴의 정신력은 세상에 대고 자랑할만 하다고

궁지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방파제부두의 뒤면에 여러동의 온실들을 규모있게 건설해놓았는데 착상이 좋다고, 면적리용을 효과적으로 잘했다고 평가하시였으며 어로공합숙도 어로공들이 아무런 불편도 없이 생활할수 있도록 구석구석 정성을 기울여 정말 손색없이 잘 꾸려놓았다고 만족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살림집들을 환한 미소속에 바라보시면서 한폭의 그림같다고, 서해지구에 희한한 해안도시가 일떠선것만 같다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이날 자연에네르기발전소를 돌아보시면서 해당 부문의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이 자연에네르기를 적극 리용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수백 kw 능력의 발전소를 주변경치와 어울리게 건설함으로써 금산포젓갈가공공장과 금산포수산사업소에 필요한 전력수요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게 되였다고 기쁨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금산포지구에 젓갈가공공장과 수산사업소를 건설할것을 결심하던 때가 엊그제같은데 방대한 공사가 완공되고 이 지구가 완전히 천지개벽되였다고 하시면서 인민군대가 당에서 대단히 중시하는 금산포젓갈가공공장과 금산포수산사업소건설을 맡아 로동당시대의 걸작으로 훌륭히 일떠세움으로써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또 하나 했다고 높이 평가하시고 건설에 동원된 전체 군인건설자들에게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감사를 주시였다.

류경김치공장 현지지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김치공장의 본보기, 표준으로 전변된 류경김치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즐비하게 늘어선 남새온실들과 넓은 면적의 남새포전 한가운데 자리잡고있는 류경김치공장에서는 지금 조선민족의 전통음식인 갖가지 김치와 장절임들을 꽝꽝 생산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김치생산의 공업화를 실현하시기 위해 심혈과 로고를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류경김치공장에 모시고 왔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홀벽면에 모신 김치와 관련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교시를 깊은 감회속에 한자한자 읽어보시고 김장준비풍경을 보여주는 반경화를 바라보시며 생동하다고, 향긋하게 잘 익은 김치맛이 떠올라 군침이 절로 돈다고 환하게 웃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생산공정 및 설비들의 기술적특성, 제품의 가지수와 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김치생산을 공업화하기 위해 생산조직과 경영활동, 품질관리의 정보화, 과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할수 있도록 통합생산체계를 훌륭히 구축해놓았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고도로 자동화, 로보트화된 설비들을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설계하고 조선의 로동계급이 제작설치하였는데 우리 사람들이 머리가 좋고 착상이 기발하며 뛰여난 재간을 가지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불과 반년사이에 류경김치공장이 지난해의 모습을 찾아볼수 없게 완전히 달라졌다고, 모든 생산공정들이 치차처럼 빈틈없이 잘 맞물려졌다고, 자동화, 흐름선화가 놀라울 정도로 완벽하게 실현된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현대적인 공장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또 하나 일떠세웠다고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날로 높아가는 우리 인민들의 문명수준에 맞게 김치를

맛있게 만드는것은 민족음식문화를 발전시키는데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민족전통음식이며 세계 5 대건강식품으로 유명해진 김치를 세계에서 으뜸가는 식품으로 당당히 자랑할수 있게 생산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당의 의도에 맞게 김치생산의 공업화, 과학화가 완벽하게 실현된 류경김치공장을 본보기, 표준으로 하여 각 도들에도 현대적인 김치공장들을 일떠세워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류경김치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자기들앞에 맡겨진 본분을 다해감으로써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황해남도 과일군 현지지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당 제 7 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첫해에 세상이 부럽도록 희한한 과일대풍을 안아온 과수의 고장 황해남도 과일군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일군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며 혹심한 자연재해속에서도 과일대풍을 마련하느라 정말 수고들이 많았다고 하시면서 당 제 7 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첫해에 과일군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자기들의 성실한 땀과 열정을 바쳐 당정책이 얼마나 정당한가를 실천으로 증명하였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과일군혁명사적관과 과일군연혁소개실을 돌아보시였다.

그이께서는 2011 년 11 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모시고 과일군을 돌아보던 잊지 못할 력사의 날을 감회깊이 회고하시면서 여러차례 과일군을 찾으시여 인민들에게 맛좋은 과일을 안겨주시려고

마음쓰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면불휴의 헌신과 로고가 있었기에 과일군의 오늘이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과일군혁명사적관과 연혁소개실은 한평생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사랑이 함축된 곳이라고 하시면서 혁명사적관과 연혁소개실을 전국의 본보기답게 잘 꾸린데 맞게 이곳을 통한 교양사업을 짜고들어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념원을 소중히 간직하고 부강하고 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을 하루빨리 일떠세우는데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과수연구소를 찾으시고 분석실, 정보실, 전자열람실 등을 돌아보시였다.

그이께서는 과수연구소에서 과일생산을 과학화, 현대화, 집약화할 높은 목표를 세우고 연구사업성과를 과수농장들에 널리 도입하였으며 우량품종의 과일나무를 재배하고 종자개량을 꾸준히 진행하고있을뿐만 아니라 기상기후조건에 맞게 매 작업반들이 과학적인 과수작업을 진행하도록 통일적인 지휘체계를 실현한데 대하여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전망대에서 과일군의 전경을 부감하시고 과수밭들을 돌아보시였다.

그이께서는 눈뿌리 아득히 펼쳐진 청춘과원을 바라보느라니 정말 기분이 좋고 어깨춤이 절로 난다고 하시면서 시인들이 이곳을 돌아보면 아마 좋은 시구절이 떠오를것이며 창작가들은 《철령아래 사과바다》와 같은 명곡을 내놓게 될것이라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수천정보의 과수밭을 다 돌아보고싶은 심정이며 보고 또 볼수록 기쁨과 환희로 가슴이 들먹인다고, 인민들이 과일군에 펼쳐진 과일대풍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좋아하겠는가를 생각하니 쌓였던 피로가 말끔히 가셔진다고 하시면서 오늘의 희한한 과일대풍을 안아온 과일군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자신께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는것을 꼭

전해달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어려있는 일터에서 일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한그루, 한그루의 과일나무마다에 자기들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과일군인민들의 당에 대한 충정심, 불타는 애국심이 어려있어 사과알들이 더 붉게 보인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과일군은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온 나라의 전렬에 내세워야 할 전형단위, 모범단위이라고 하시면서 조선로동당 위원장의 이름으로 감사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과일군이 올해 이룩한 성과에 토대하여 더 높이 비약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과일군앞에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평양버섯공장 현지지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버섯공장의 본보기, 표준단위인 평양버섯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공장전경을 환한 미소속에 바라보시면서 드넓은 부지에 일떠선 생산건물들과 보조건물들이 특색이 있으면서도 산뜻하고 멋있다고, 건축물의 조형화, 예술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공장의 주변환경이 마음에 든다고, 평양버섯공장이 일떠섬으로써 이 지구가 더욱 환해졌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공장전경도앞에서 해설을 들으신 다음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였다.

그이께서는 평양버섯공장의 설비들을 자체의 힘과 기술, 자재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볼수록 흐뭇하고 힘이 난다고, 공장을 일떠세우면서 조선의 주체적인 력량과 자체의 기술에 의거하여 현대화를 실현할데

대한 당의 국산화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였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평양버섯공장은 내놓고 자랑할만 한 공장, 안팎으로 흠잡을데가 없는 버섯공장의 본보기, 표준이라고 하시면서 공장을 로동당시대의 자랑스러운 창조물로,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또 하나의 귀중한 재부로 훌륭히 일떠세우는데 기여한 설계 및 시공단위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대로 우리 나라를 버섯의 나라로 만들려는것은 당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하시면서 공장의 관리운영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자기들앞에 맡겨진 본분을 다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강서약수공장 현지지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강서약수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강서약수공장에는 몸소 터전도 잡아주시고 **《강서약수》**라는 제품의 이름까지 친히 달아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온 나라가 시련을 겪던 고난의 행군시기에 공장을 현대적으로 개건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공사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직접 풀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에 대한 하늘같은 사랑이 뜨겁게 어리여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강서약수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마음을 많이 쓰신

인민사랑의 공장에서 일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고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인민사랑의 샘줄기가 영원토록 흐르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생산실태와 경영활동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제품전시장에 진렬된 약수제품들을 하나하나 보아주시며 공장에서 생산한 약수를 마시는 인민들속에서 반영이 대단하다는데 누구나 좋아하고 수요가 높은 강서약수를 더 많이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공급해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약수터에서 몸소 약수맛도 보아주시고 우리 나라에 약수가 나오는 곳이 많지만 강서약수맛이 제일 좋다고 하시면서 뜻하지 않게 약수샘줄기가 끊어졌을 때 위대한 장군님께서 강력한 연구집단을 보내주시여 본래보다 량도 더 많고 질도 더 좋은 새 약수샘줄기를 찾아주신 사랑의 일화를 감회깊이 회고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강서약수공장의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것은 사회의 모든 재부가 철두철미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지는 우리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과시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산좋고 물맑은 우리 나라에는 가는 곳마다 약수와 온천이 대단히 많다고 하시면서 이것을 잘 리용하여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적극 이바지하게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데서 강서약수공장이 맡고있는 임무와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공장앞에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안고 사람들의 몸에 좋은 이름난 강서약수를 대대적으로 생산함으로써 인민들에게 더 많이 보내주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삼천메기공장 현지지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양어의 주체화, 과학화, 집약화, 공업화가 최상의 수준에서 실현됨으로써 세계적수준의 대규모양어기지로 훌륭히 전변된 삼천메기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삼천메기공장의 전경을 바라보시며 그전에 보았던 모습을 전혀 찾아볼수 없이 천지개벽되였다고,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공장, 도시에 들어앉아도 손색없을 멋쟁이공장이 보란듯이 일떠섰다고, 규모나 생산공정의 현대화에 있어서 조선의 양어부문을 대표하는 공장, 후대들에게 물려줄 나라의 귀중한 재부가 또 하나 늘어났다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새로 꾸린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소개실을 돌아보시였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모시고 삼천메기공장을 찾으시였던 잊지 못할 력사의 그날을 감회깊이 회고하시면서 이 공장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메기양어개척의 첫삽을 박으신 뜻깊은 곳이라고, 장군님의 직접적인 발기에 의하여 일떠서고 세심한 령도의 손길아래 걸어온 삼천메기공장의 발전로정속에는 인민들과 군인들의 식생활향상을 위해 바쳐오신 장군님의 헌신과 로고가 뜨겁게 어리여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삼천메기공장은 인민들과 군인들을 위해 남기신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유산중의 하나이라고 하시면서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고, 그것은 장군님의 생전의 념원을 꽃피우는 사업인 동시에 장군님의 높으신 권위를 보위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그 관철을 위한 길에 한몸을 아낌없이 바치려는 비상한 각오와 책임감을 안고살며 투쟁함으로써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현실로 꽃피워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생산 및 현대화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에서 소문난 온천지대인것으로 하여 온수성물고기인 메기를 기르는데서 리상적이며 더운물걱정이 전혀 없는 곳에 일떠선 삼천메기공장이 현대적으로 개건됨으로써 많은 메기를 생산할수 있게 된것은 대단한 성과이라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삼천메기공장이 메기양어의 본보기, 표준공장으로 전변된것만큼 더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투쟁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공장의 관리운영에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삼천메기공장을 돌아보니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만년대계의 창조물들을 하나하나 일떠세워가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하여 가슴이 뿌듯해진다고, 지난번에는 무거운 걸음으로 돌아갔는데 오늘은 마음도, 발걸음도 가볍게 돌아가게 되였다고, 만족에 대만족이라고 격정에 겨워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당의 의도대로 대규모의 삼천메기공장을 양어부문의 본보기, 표준, 주체시대의 자랑스러운 창조물로 일떠세움으로써 위대한 장군님의 념원을 실현하고 장군님의 권위를 보위한 군인건설자들에게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특별감사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삼천메기공장에 대한 당의 기대는 참으로 크다고 하시면서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당정책관철에서 온 나라의 앞장에 서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순천메기공장 현지지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새로 건설된 순천메기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공장구내에 정중히 모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자애로운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를 보신 다음 순천메기공장조감도앞에서 해설을 들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순천메기공장을 산뜻하면서도 규모있게 정말 잘 건설하였다고 하시면서 순천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버림물을 리용하여 온수성물고기인 메기의 생육조건에 필요한 더운물을 항상 보장할수 있는 명당자리에 공장을 일떠세웠다고, 주체화, 과학화, 집약화, 공업화가 실현된 현대적인 메기공장을 건설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평안남도가 앞장에서 훌륭히 관철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건설정형과 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공장에서 야심만만한 목표를 세우고 생산정상화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공장의 관리운영에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순천메기공장은 조선로동당 제 7 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속에서 새로 태여난 공장, 평안남도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기 힘을 믿고 앞날을 락관하며 떨쳐일어나 일떠세운 고귀한 창조물이라고 하시면서 도내인민들이 공장건설을 통하여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면 못해낼 일이 없고 세상이 보란듯이 더욱 잘살수 있다는것을 다시금 페부로 절감하였다고 한다는데 신심이 백배해진다고 격정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없이 건설된 공장을 대단히 만족하게 돌아보았다고 하시면서 당의 의도에 맞게

순천메기공장을 훌륭히 일떠세우는데 적극 이바지한 평안남도안의 일군들과 건설자들, 지원자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삼지연감자가루생산공장 현지지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새로 건설된 삼지연감자가루생산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삼지연감자가루생산공장조감도앞에서 해설을 들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아담하고 정갈한 공장의 전경을 환한 미소속에 바라보시며 멋있다고, 생산건물들이 산뜻하면서도 깨끗하여 겉보기에도 식료가공기지라는것이 알린다고 하시면서 산업시설맛이 나게 건설을 잘했다고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건설 및 생산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삼지연감자가루생산공장이 생산정상화의 불길속에 감자가공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 실지 인민들에게 덕을 주는 공장으로 자기의 몫을 다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공장의 관리운영에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마련된 또 하나의 재부인 삼지연감자가루생산공장에서 감자가공품들이 쾅쾅 생산되면 량강땅을 찾아오는 혁명전적지답사자들과 인민들이 좋아할것이라고 하시면서 당의 의도에 맞게 공장을 훌륭히 건설한 건설자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의 로력적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삼지연감자가루생산공장은 안팎으로 흠잡을데가 없는 희한하고 멋있는 공장, 조선의 감자가공공업의 본보기공장이라고

하시면서 인민들에게 맛좋고 영양가높은 감자가공품을 더 많이 안겨주시려고 마음쓰신 위대한 장군님께 현대적인 감자가루생산공장을 이미전에 건설하여 보여드리였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삼지연감자가루생산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인민들의 식생활수준을 더욱 윤택하게 하려는 당의 의도를 항상 명심하고 자기들앞에 맡겨진 영예로운 임무를 다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평양가방공장 현지지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새로 건설된 평양가방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공장의 전경을 환한 미소속에 바라보시며 평양시안의 공장, 기업소들, 락랑구역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공장을 산뜻하고 멋있게 잘 지었다고, 건물들과 주변환경이 깨끗하다고, 수도의 면모에 어울리게 건설을 정말 잘했다고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건설 및 생산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제품견본실에 소학교,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 대학에 이르는 각종 남녀학생가방들을 진렬해놓았는데 공장에서 자체로 생산한 가방천과 부속자재를 가지고 아이들과 학생들의 취미, 기호, 미감에 맞는 여러가지 형태와 색갈의 가방들을 잘 만들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평양가방공장이 맡고있는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공장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평양가방공장이 일떠선지 얼마 되지 않지만 벌써

가방사태, 가방풍년이 들었다고 하시면서 공장에서 자체의 원료와 자재를 가지고 만든 가방을 아이들과 인민들에게 안겨주게 되였으니 얼마나 좋은가고, 별세상에 와본것 같은 오늘을 잊지 못할것같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자체의 힘으로 교복과 학습장, 교과서는 물론 질좋은 가방까지 생산하여 아이들에게 안겨주는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힘겨워도 보람있는 일을 또 하나 해놓고보니 가슴이 뿌듯해진다고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자체로 만든 멋쟁이 가방을 메고 학교로 오가며 웃고 떠들 아이들의 모습이 떠올라 마음이 흥그러워진다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모든것을 자체로 만들어 안겨주어야 그들이 자기것을 귀중히 여기는 참된 애국의 마음을 간직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평양가방공장은 보배공장이라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평양가방공장을 만족하게 돌아보았다고 하시면서 교양구역, 생산구역, 생활구역의 계선이 명백하면서도 모든 요소들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건설하였는데 설계도 잘되고 시공도 나무랄데가 없다고, 멋있다고, 마음에 꼭 든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각 도들에 가방공장을 현대적으로 잘 건설하자고 하였는데 평양시가 당정책관철의 기치를 제일먼저 들었다고 하시면서 당에서 중시하는 문제를 정확히 포착하고 대중을 당의 사상과 정책을 관철하는 총동원전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는 평양시당위원회의 사업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새해전투에 진입한 평양가방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투쟁열의가 대단히 높다고 하시면서 자기 자식들의 가방을 만드는 심정으로 가방생산에 정성을 다 바침으로써 맡겨진 본분을 다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김정숙평양제사공장에 새로 꾸린 이불생산공정과 새로 건설된 로동자합숙 현지지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김정숙평양제사공장에 새로 꾸린 이불생산공정과 새로 건설된 로동자합숙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먼저 새로 꾸린 이불생산공정을 돌아보시면서 생산 및 제품의 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불의 색갈, 무늬가 우리 인민의 정서와 미감에 맞으면서도 고상하고 아름다울뿐만아니라 이불이 가벼우면서도 부드럽다고 하시면서 상업망들에 나가면 인민들의 눈길을 끌고 수요가 높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생산에 리용되는 자재도 모두 우리의것이라고 하시면서 녕변견직공장을 비롯한 경공업공장들에서 생산하는 비단천과 명주솜 등을 가지고 여러가지 이불들을 만들고있는데 얼마나 좋은가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제품창고에 이불들이 그득히 쌓여있다고 하시면서 며칠전 새로 건설된 평양가방공장에 가서는 가방폭포를 보았고 오늘 김정숙평양제사공장에 와서는 이불폭포를 보았는데 정말 기분이 좋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경공업정책의 운명은 중요하게 경공업공장들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이 인민들의 마음을 사는가 못 사는가 하는데 달려있다고 하시면서 김정숙평양제사공장에서는 인민들속에서 인기가 있는 질좋은 이불들을 꽝꽝 생산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이어 새로 건설된 로동자합숙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합숙을 바라보시며 정말 멋있고 특색있다고, 종합적인 편의봉사시설과 외랑으로 련결된 건물외벽에 로동자합숙이라는 글발을

큼직하게 붙이였는데 공장로동자들의 집이라는것이 잘 알린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현관홀에 들어서시여 합숙의 특성에 맞게 홀의 공간을 잘 꾸렸으며 복도의 층고도 알맞춤하다고, 벽색갈도 아늑한감을 느낄수 있게 잘 선택하였다고 기뻐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대중식사실, 생일식사실들이 정갈하며 장식품들과 주방에 갖추어놓은 설비들, 그릇가지들도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서 합숙생들이 입사하는 날 연회장같은 식사실에서 잔치상을 크게 차려주자는 은정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합숙생들이 하루일을 마치고 즐거운 휴식을 할수 있게 꾸린 체육 및 오락실도 흠잡을데 없으며 그들의 생활상편의를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할수 있도록 꾸려진 침실들에 책꽂이, 옷장은 물론 경대까지 갖추어놓았는데 녀성들이 정말 좋아할것이라고 환하게 웃으시였다.

그이께서는 로동자합숙을 녀성들의 심리에 맞으면서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이 건설했다고, 가구설계도 잘되고 시공의 질도 대단히 높다고, 지열에 의한 난방보장체계를 구축해놓았는데 합숙생들이 한겨울에도 뜨뜻한 곳에서 생활할수 있게 되였다고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공장종업원들이 새로 건설된 합숙을 세상에 둘도 없는 로동자들의 궁전, 호텔이라고 한다는데 그들이 좋아한다니 자신께서도 기쁘다고, 로동자들을 위한 이런 희한한 건축물은 로동계급의 세상인 조선에서만 일떠설수 있다고 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곳을 돌아보시였으면 얼마나 기뻐하시였겠는가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김정숙평양제사공장에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로동자합숙까지 일떠섬으로써 종업원들이 아무런

불편도 없이 일하며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향유할수 있게 되였다고, 일군들은 생산에 앞서 로동자들의 생활상애로가 무엇인가부터 알아보고 우선적으로 풀어주어야 한다고, 훌륭한 로동생활조건보장이자 높은 생산실적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김정숙평양제사공장 로동자합숙은 로동당시대의 문명의 높이, 건설의 대번영기가 펼쳐지는 오늘날 조선의 건축술이 얼마나 높은 경지에 올라섰는가를 보여주는 기념비적창조물이라고 하시면서 당이 준 명령을 빛나게 결사관철한 조선인민군 군인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고 그들에게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감사를 주시였다.

류원신발공장 현지지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신발공업부문의 전형단위, 표준공장으로 훌륭히 전변된 류원신발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먼저 공장구내에 정중히 모신 모자이크벽화 《류원신발공장에서 생산한 신발을 보아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와 공장에 새겨져있는 당의 불멸의 령도자욱을 후세에 길이 전하기 위해 건립한 현지지도표식비를 보시였다.

그이께서는 환하게 웃으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뵈옵는것만 같다고 하시면서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어 질좋고 맵시있는 신발을 더 많이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안겨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새로 꾸린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소개실을 돌아보시였다.

그이께서는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소개실을 당의 손길아래 류원신발공장이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어떤 성과와 경험을

이룩하였는가를 잘 알수 있도록 생동하면서도 교양적의의가 있게 꾸렸다고 하시면서 종업원들속에서 이곳을 통한 교양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실속있게 벌려 그들이 영광의 일터에서 일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맡은 일을 더 잘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개건 및 생산정형, 제품의 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공장옥상에 설치한 태양빛발전설비들의 가동실태를 료해하시고 신발생산과 랭난방, 식당운영, 조명 등 생산과 경영활동에 필요한 전기를 생산보장하고있는데 대하여 치하하시였으며 종업원들이 충분한 문화정서생활을 할수 있도록 목욕탕, 수영장을 비롯한 문화후생시설들도 손색없이 꾸려놓았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류원신발공장에서 생산하고있는 운동신발들의 가지수가 대단히 많고 맵시있으며 질이 좋다고, 세계적으로 이름난 운동신발들과 당당히 견줄수 있다고 하시면서 우리가 만든 운동신발, 체육신발들을 신고 기뻐할 인민들과 아이들, 체육인들을 생각하니 정말 흐뭇하다고 환하게 웃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류원신발공장이 우리 나라 신발공업부문의 전형단위, 표준공장으로 전변된데 맞게 신발들을 인민들의 호평을 받고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제품으로 생산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공장앞에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류원신발공장의 전경을 보고 또 보시며 내놓고 자랑할만 한 공장, 안팎으로 흠잡을데가 없는 만점짜리 공장,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마련된 또 하나의 재부라고 하시면서 공장을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로 일떠세운 일군들, 과학자, 기술자, 건설자들의 로력적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류원신발공장을 정말 만족하게 돌아보았다고 하시면서

공장에서 높이 울리고있는 생산증산의 동음소리는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워가는 전체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의 힘찬 진군가로 들린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류원신발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자기들앞에 맡겨진 영예로운 임무를 항상 명심하고 인민들에게 질좋고 맵시있는 운동신발들을 안겨주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락랑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 현지지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락랑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일군들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며 영예군인들이 모두 건강한가, 애로되는것은 없는가를 다정히 물어주시면서 군사복무의 나날에 발휘한 불타는 애국심을 안고 오늘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새로운 전투초소를 믿음직하게 지켜가고있는 영예군인들을 고무격려해주려고 찾아왔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주변의 풍치와 어울리게 특색있게 일떠선 생산건물들과 보조건물들, 수종이 좋은 나무들로 둘러싸인 산뜻한 구내를 환한 미소속에 바라보시며 겉볼안이라고 주변환경만 보고서도 영예군인들이 지니고있는 뜨거운 공장애를 잘 알수 있다고 하시면서 혁명적군인정신이 차넘치는 공장이라고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생산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들을 하나하나 보아주시며

가지수가 많을뿐만아니라 쓸모있게 잘 만들었다고 하시면서 공장제품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가 높다고, 특히 인민들의 기호에 맞으면서도 식료품들의 질과 문화위생성을 담보할수 있는 포장재들을 손색없이 만들어 평양시를 비롯한 각 도의 식료공장들에 보내주고있는데 대단하다고, 영예군인들이 일하는 본때가 다르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정결한 작업장마다에 주런이 늘어선 현대적인 설비들이 이미 있던 설비들을 개조한것이며 그가운데는 수십년간 사용한것도 있다는데 새 설비와 함께 낡은 설비도 첨단과학기술을 도입하여 새것처럼 만들어 생산에 참가시키고있는것이 무엇보다 마음에 든다고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공장의 모든 기대들을 자기의 무기, 전투기술기재처럼 귀중히 여기고 애호관리하고있는 영예군인들의 애국심이 낳은 결실이라고 하시면서 락랑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은 설비관리에서 본보기, 모범공장이라고, 온 나라에 널리 소개선전하고 따라배우게 하라고 지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나라의 보배인 영예군인들을 위해서라면 아까울것이 없으며 건강한 몸으로 자기앞에 맡겨진 일을 잘하도록 그들의 생활을 잘 돌봐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모든 당조직들에서는 영예군인들이 사소한 애로와 불편이 있을세라 세심히 보살펴주는것을 의무와 본분으로 여겨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공장을 돌아보니 영예군인들이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야 한다는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병사시절처럼 조국과 인민을 위한 투쟁의 길을 변함없이 이어가고있다는것을 다시금 잘 알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앞으로도 불타는 애국심과 혁명적군인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당정책결사관철의 기수, 돌격대의 본분을 다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평양화장품공장 현지지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화장품공장의 전형단위, 표준으로 훌륭히 전변된 평양화장품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존귀하신 영상을 모신 모자이크벽화《우리 인민들에게 더 좋은 화장품을 마련해주시려고》를 보신 다음 새로 꾸린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소개실을 돌아보시였다.

그이께서는 2003 년 8 월 평양화장품공장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영상사진문헌들을 한상한상 주의깊게 보시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훌륭히 전변된 공장을 돌아보시였으면 대단히 기뻐하시였을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인민들에게 보다 문명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시려고 마음써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사랑이 평양화장품공장의 곳곳마다에 어려있다고 하시면서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그날의 현지교시를 언제나 잊지 말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질좋은 화장품을 더 많이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안겨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개건정형과 생산 및 연구실태, 제품의 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평양화장품공장이 생산구역, 교양구역, 생활구역이 명백히 구분되고 모든 건축물들이 록색형, 에네르기절약형으로 꾸려졌으며 그 어디를 둘러보아도 종전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수 없게 완전히 때벗이하였다고 하시면서 공장을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도록 세상이 보란듯이 번듯하게 개건해놓으니 정말 기분이 좋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화장품은 날로 높아가는 우리 인민들의 문화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소비품의 하나이라고 하시면서 공장앞에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고 2 단계 생산공정현대화과업을 현지에서 직접 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평양화장품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인민들에게 질좋은 화장품을 안겨주기 위한 투쟁에서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4) 건설부문에서 혁신을 일으키기 위하여

(1) 려명거리건설을 최상의 수준에서 완성하도록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1 월 려명거리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우후죽순처럼 솟아오른 건축물들을 환한 미소속에 바라보시면서 불과 1 년 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려명거리의 웅장한 자태가 완연하게 드러났다고, 당의 대건설구상을 불같은 헌신과 완강한 실천으로 꽃피우기 위해 비약의 폭풍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는 려명거리건설자들의 투쟁에 의하여 신화적인 건설속도가 창조되고있다고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려명거리조감도와 사판앞에서 해설을 들으신 다음 건설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건설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금수산태양궁전방향에는 정중성의 원칙에서 건물들을 높지 않으면서도 보기 좋고 아담하게 건설하였으며 룡흥네거리의 영생탑방향에는 상징성의 원칙에서 초고층건물들을 집중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웅장화려한 건축군이 형성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려명거리에 여러개의 살림집구획들을 설정하고 매 구획들마다 자기의 고유한 특성이 살아나게 건물들을 일떠세운 결과 거리안에 거리가 생겨났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초고층살림집들이 볼만 하다고 하시면서 하늘을 찌를듯이 높이 솟은 70 층살림집이 장관이라고, 우리 나라에서 층수가 제일 높은 살림집이 려명거리에 일떠섰다고, 초고층살림집의 아래층부분에 보기에도 좋고 안정감이 나는 기단층을 형성하였으며 특색있는 편의봉사시설들을 꾸리고있는것이 마음에 든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당의 독창적인 주체적건축미학사상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려명거리건설장의 전경을 만족하게 바라보시면서 이곳은 세상에 다시없는 인민의 지상락원을 자기의 손으로 보란듯이 일떠세워가는 전체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의 불굴의 정신력, 폭풍노도쳐 전진하는 주체조선의 기상, 하늘을 찌를듯이 높아가는 사회주의문명을 과시하는 곳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최근 해마다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거리들을 하나씩 건설하였으며 그 규모와 공사량에 있어서 이전의 거리들보다 비할바없이 큰 려명거리건설을 자체의 힘과 기술, 자재로 진행하고있는것은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의 일심단결의 불가항력적힘과 한계를 모르는 주체조선의 무진막강한 국력의 일대 과시로 된다고 하시면서 최상의 문명이 응축된 려명거리가 완공되면 공화국의 자력자강의 힘에 대한 찬탄의 목소리가 또다시 온 세상에 울려퍼지게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려명거리건설장은 로동당시대와 더불어 힘차게 전진하는 사회주의조선의 필승의 기상을 과시하는 전구이라고 하시면서 전체 건설자들이 최후돌격전에 산악같이 떨쳐일어나 마지막결승주로를 힘차게 달림으로써 려명거리건설을 태양절까지 무조건 완공하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3 월 려명거리건설장을 또다시 현지지도하시였다.

이른새벽 려명거리건설장에 도착하신 그이께서는 불야경을 이룬 거리의 모습을 환한 미소속에 바라보시면서 멋있다고, 낮에 볼 때에도 희한했는데 어둠속에서 보니 그것대로 볼만 하다고, 불장식까지 하면 아름답고 황홀함을 말이나 글로써는 다 표현하기 어려울것이라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건설장에 흐르는 휘황한 불빛은 마치도 어둠을 밀어내는 려명처럼 보인다고 하시면서 사회주의 내 조국의 동이 터오는것만 같다고, 말그대로 려명거리라고 격정에 겨워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지난해 북부피해복구전투로 건설을 석달이나 중지하였는데도 벌써 완공의 날을 맞이하게 되였다고 하시면서 아침과 저녁이 아니라 분초가 다르게 전변되고있는것이 조선의 참모습이라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건설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건설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려명거리에서 살게 될 인민들이 좋아하는 모습이 눈에 선히 떠오른다고, 인민들에게 태양절까지 려명거리건설을 끝내겠다고 약속하였는데 그것을 지킬수 있게 되였다는 생각, 인민들과 또 하나의 기쁨을 함께 나누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는 생각에 기분이 정말 좋다고 하시면서 인민들이 좋아하고 인민의 리익을 존중하는 일이라면 그 어떤 힘겨운 일이라도 무조건 해내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건설자들의 심장에 혁명열, 투쟁열, 경쟁열을 북돋아주는 화선선전, 화선선동을 더욱 힘있게 벌릴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려명거리건설완공에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태양절까지는 이제 30 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전체 건설자들이 마지막결승선을 향하여 질풍노도쳐 내달림으로써 려명거리를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로 훌륭히 일떠세워 사회주의조선의 불패의 국력을 남김없이 시위하자고 다시금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조선로동당의 웅대한 구상과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대건설전투에 떨쳐나선 건설자들은 비약의 폭풍을 일으켜 당에서 정해준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려명거리를 훌륭히 일떠세웠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4 월 어느날 려명거리 준공식에 참석하시여 준공테프를 끊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군중들에게 손저어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였다.

주체조선의 강대성과 불패의 국력을 힘있게 과시하며 솟아오른 려명거리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위대한 령도따라 온 나라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이 당중앙과 운명의 피줄을 잇고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사회주의강국의 휘황한 미래를 향해 폭풍노도쳐 나아가는 일심단결, 혼연일체의 불가항력적위력, 자력자강의 자랑찬 창조물로 세세년년 빛을 뿌릴것이다.

(2) 삼지연군의 여러 단위들을 현지지도하시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삼지연군의 여러 단위들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삼지연군에 정중히 모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삼가 인사를 드리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삼지연군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높이 모신 크나큰 영광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장군님의 동상을 더 잘 모시기 위한 정성사업에 충정의 마음을 다 바쳐가고있는데 대하여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새로 개건된 삼지연군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실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삼지연군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실의 여러곳을 돌아보시고 당의 유일사상교양의 거점답게 훌륭히 꾸려졌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삼지연군에서는 전국의 본보기답게 훌륭히 개건된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실의 관리운영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어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과 수령의 혁명사상을 확고한 신념으로 간직한 사상의 제일강자, 당정책관철의 제일결사대로 더욱 튼튼히 준비시켜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새로 개건한 삼지연읍려관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삼지연읍려관은 전국각지에서 혁명의 성지를 찾아오는 답사자들을 비롯한 인민들이 리용하는 곳이므로 삼지연군의 얼굴이나 같다고 하시면서 모든 봉사활동에서 그들의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는것을 철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새로 개건된 삼지연읍종합상점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상점의 매장들마다에 우리가 만든 가지수가 다양하고 질좋은 상품들이 가득차있다고 하시면서 상품진렬은 제품들에 대한 소개와 함께 봉사활동의 친절성, 편리성, 문화성을 보장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것만큼 상품진렬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상품보관과 판매, 구매자들의 편리를 최대한 보장할수 있는 봉사시설들을 구색이 맞게 더 잘 갖추어놓음으로써 상점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기호와 요구에 맞는 갖가지 상품들을 구매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상업봉사활동을 잘하기 위해서는 봉사자들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봉사활동과 관련한 교육을 심도있게 진행하며 선진적인 봉사방법을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읍지구에 새로 건설한 살림집들을 돌아보시였다.

그이께서는 지역적특성이 살아나게 살림집들을 깨끗하면서도 아담하게 잘 건설했다고 하시면서 이곳에서 살게 될 주인들이 좋아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건설자들이 제 집을 꾸리는 심정으로 살림집들을 건설했는데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것을 자기의 숭고한 사명으로 삼고있는 조선로동당의 의도가 반영된 살림집들을 더 많이 일떠세워 군내인민들에게 안겨주어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완공단계에 이른 삼지연청년역과 삼지연못가역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백두의 천연수림과 어울리게 뾰족지붕을 떠이고 일떠선 삼지연청년역의 겉모양이 멋있다고, 설계를 잘했다고, 한폭의 그림을 보는것만 같다고 하시면서 건축미학적으로, 조형예술적으로 손색없이 건설을 잘했다고 치하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삼지연청년역과 삼지연못가역을 유서깊은 혁명의 성지인 삼지연군의 관문답게 현대적이면서도 산간지대의 멋이 그대로 살아나도록 건설하였다고 하시면서 공사가 완공단계에 이른것만큼 장애자들과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들을 비롯하여 모든 요소요소를 더 완벽하게 꾸리고 내외부시공을 더욱 깐깐히 진행하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이밖에도 삼지연군의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삼지연군건설총계획모형사판을 보시면서 삼지연군꾸리기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삼지연군꾸리기에 동원된 전체 건설자들과 군내인민들이 당의 의도대로 혁명의 시원이 열린 삼지연군을 전국의 모범군, 본보기군, 세상에 둘도 없는 산간도시로 훌륭히 전변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자기들앞에 맡겨진 영예로운 사명과 본분을 다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4. 문화분야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혁명적앙양을 일으키도록

1) 과학기술의 발전에 힘을 넣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설계부문의 본보기, 표준으로 전변된 백두산건축연구원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주체적건축발전을 위해 바쳐오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령도사가 응축되여있는 귀중한 사적자료들과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보시면서 백두산건축연구원이 걸어온 자랑스러운 행로를 감회깊이 회고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백두산건축연구원의 사명과 임무를 명시하여주시고 건축설계와 건축과학연구사업에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였으며 천여건의 설계대상과 과학연구과제를 직접 맡겨주시였을뿐만아니라 설계형성안도 몸소 지도해주시면서 연구원의 사업을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백두산건축연구원의 일군들과 설계가, 건축가, 연구사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자욱이 새겨져있는 영광의 일터에서 일하는 크나큰 긍지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설계도면에 찍는 점 하나, 설계도면에 긋는 선 하나에도 로동당시대의 사회주의문명, 인민의 리상과 꿈을 그대로 담을줄 아는 애국적인 미술가, 창작가로 살며 투쟁함으로써 위대한 장군님께서 건축부문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빛내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건축연구원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현대화정형과 현행사업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연구원의 사업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백두산건축연구원에 대한 당의 믿음과 기대는 매우 크다고 하시면서 일군들과 설계가, 건축가, 연구사들이 앞으로도 자기들앞에 맡겨진 무겁고도 영예로운 사명과 본분을 다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2) 교육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섬분교와 최전연지대, 산골학교들에 자원진출한 교원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당에서 걱정하는 문제, 당이 바라는 일에 한몸 아낌없이 내대는 투철한 신념과 백옥같은 충정의 마음으로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조국의 미래를 책임진 교원혁명가로서의 깨끗한 량심과 헌신의 자욱을 새겨가고있는 이들모두의 순결한 애국심에 머리가 숙어진다고, 온 사회가 이들을 적극 내세워주어야 하며 그들이 지닌 혁명가적인생관, 후대관을 따라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섬분교와 최전연지대, 산골학교들에 자원진출한 교원들이 앞으로도 당과 조국앞에 다진 맹세를 변함없이 지켜 교수교양사업에 모든 지혜와 열정을 다 바침으로써 후대들을 사회주의조선의 믿음직한 주인공들로 억세게 키워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3) 보건사업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도록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새로 건설된 치과위생용품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아담하고 정갈한 치과위생용품공장의 전경을 환한 미소속에 바라보시면서 멋쟁이공장이 또 하나 일떠섰다고, 위생용품생산기지의 체모에 맞게 외벽을 흰색과 록색타일로 처리하니 보기에도 좋고 산뜻하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생산공정도와 조감도앞에서 해설을 들으신 다음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건설정형과 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공장의 관리운영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예로부터 이발이 든든한것을 오복의 하나라고 하였는데 현대적인 치과위생용품공장을 새로 건설함으로써 인민들에게 여러가지 질좋은 치과위생용품을 안겨주려던 소원을 풀게 되였다고 하시면서 인민들의 무병장수를 위한 보람있는 일을 또 하나 해놓고보니 정말 기분이 좋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치과위생용품공장에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 질좋은 치과위생용품들을 인민들에게 떨구지 말고 보장해주어 인민들이 그 덕을 단단히 보게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생산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자신께서 모두 풀어주시겠다고, 걸린 문제가 있으면 제때에 보고하라는 은정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당과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봐주는 세상에 둘도 없는 조선의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해 당에서는 보건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다지기 위한 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고있다고 하시면서 인민들이 사회주의보건제도의 혜택을 실지 폐부로 절감하면서 행복한 삶을 마음껏

누리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치과위생용품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자기들앞에 맡겨진 영예로운 임무를 항상 명심하고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투쟁에 힘과 열정, 지혜를 아낌없이 바쳐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4) 문학예술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1) 공훈국가합창단창립 70돐 기념공연에 참석하시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모시고 공훈국가합창단창립 70돐 기념공연이 성대히 진행되였다.

전체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은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터쳐올리며 혁명군가의 무한대한 위력으로 존엄높은 조선로동당과 국가, 군대의 위용을 만방에 떨치시고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백전백승의 한길로 이끄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였다.

영예의 **김일성**훈장을 수여받은 공훈국가합창단은 경사로운 2월에 창립 70돐을 맞이한 긍지를 안고 뜻깊은 공연무대에 당과 수령에 대한 송가들과 조국찬가들,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군가들로 환희로운 음악세계를 펼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출연자들이 조선로동당의 혁명사상, 주체적문예사상이 철저히 구현되고 만리마시대의 정신이 맥동치는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공연을 진행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고 창립 70돐을 맞이한 공훈국가합창단의 전체 성원들을 열렬히 축하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공훈국가합창단이 앞으로도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높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총공격전의 선두에서 조선혁명의 핵심부대, 기관차, 오늘의 쟁쟁한 빨찌산나팔수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합창단의 창작가, 예술인, 지휘성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5 돐경축 열병식참가자들을 위한 공훈국가합창단 축하공연에 참석하시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05 돐경축 열병식참가자들을 위한 공훈국가합창단 축하공연이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성황리에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열병식참가자들과 함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영예의 **김일성**훈장을 수여받은 공훈국가합창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은 주체조선의 강대성과 필승불패성을 과시하며 혁명의 천만리길에 높이 울린 승리의 대진군가, 사회주의에 대한 전인민적찬가들을 훌륭히 창조형상하여 뜻깊은 축하무대에 펼쳐놓았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출연자들과 열병식참가자들에게 따뜻이 손을 저어주시며 공연성과를 축하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열병식참가자들이 총대로 개척되고 전진하여온 조선혁명의 백승의 력사와 전통을 이어 태양의 위업을 백두산총대로 굳건히 받들어나감으로써 사회주의수호전과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수행에서 혁명적무장력의 성스러운 사명과 본분을 다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5. 온 나라가 밝아지게

1) 조선소년단 제8차대회를 마련해주시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소년단 제 8 차대회에 참석하시여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먼저 사회주의조국의 기쁨이고 자랑이며 희망이고 미래인 조선소년단원들의 명절 6.6 절을 맞으며 전국의 소년단원들과 소년단원들을 나라의 억센 기둥감으로 키우기 위해 힘쓰고있는 소년단지도원들과 분단지도원선생들, 학부형들에게 인사를 보내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소년단 제 8 차대회는 당의 품속에서 아름다운 꿈과 행복을 꽃피우며 씩씩하게 자라나는 소년단원들의 담찬 기상을 힘있게 떨치고 조선소년단을 영원히 그 이름도 빛나는 **김일성, 김정일**소년단으로 강화발전시키는데서 뜻깊은 계기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소년단이 걸어온 영광스럽고 자랑찬 력사는 소년단원들을 제일로 아끼고 사랑하시며 후대들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주체적소년운동사상과 령도의 빛나는 승리의 력사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현시기 소년단조직들앞에 나서는 기본임무와 소년단원들앞에 나서는 기본혁명과업을 비롯하여 조선소년단을 강화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소년단원들의 앞날은 끝없이 양양하며 소년단원들의 앞길에는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가 높이 울려퍼질 사회주의 강국이 약속되여있다고 하시면서 소년단원들의 아름다운 풍모와

씩씩하고 명랑한 모습에서 주체혁명의 밝은 래일을 내다보고있는 조선로동당은 소년단원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을것이며 소년단원들의 행복에 넘친 웃음과 창창한 미래를 끝까지 지켜줄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조선소년단 제 8 차대회는 백두의 혈통을 꿋꿋이 이어나가는 조선소년단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더욱 빛내이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충정의 해바라기로, 사회주의강국의 기둥감으로 튼튼히 준비해나가려는 온 나라 전체 소년단원들의 절대불변의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과시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소년단 제 8 차대회 참가자들이 조선혁명과 주체적소년운동발전의 요구에 맞게 소년단사업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을 일으키며 조선소년단을 지덕체의 룡마타고 사회주의조선을 위하여 항상 준비해가는 미래의 주인공들의 대오로 억척같이 다져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2) 두차레나 만경대혁명학원을 찾으시고

(1) 원아들과 함께 식수를 하시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만경대혁명학원을 찾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원아들에게로 다가가시여 감격에 겨워 어쩔줄 몰라하는 그들의 볼도 쓸어주시며 몇살인가, 몇학년인가, 학습과 조직생활은 어떻게 하는가를 친어버이심정으로 다정히 물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2013 년 6 월 조선소년단 제 7 차대회 주석단에서 몸소 만나주시였던 원아를 대뜸 알아보시고서는 그동안 키가 쑥 컸다고, 벌써 17 살이라는데 제법 청년티가 난다고 환하게 웃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오늘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나무심기운동의 첫 봉화를 지펴주신 뜻깊은 식수절이라고 하시면서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애국업적을 길이 전하고 전체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의 가슴마다에 열렬한 조국애, 향토애를 더욱 북돋아주는 의의깊은 날을 맞으며 어디에 가서 나무를 심을것인가를 생각하느라니 만경대혁명학원 원아들의 모습이 떠올라 이곳을 찾아왔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봄철나무심기에 떨쳐나선 전체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애국의 뜻을 받들어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하고 조국산천을 더욱 살기 좋은 사회주의선경으로 꾸리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고 하시면서 혁명의 계승자, 골간들로 자라는 만경대혁명학원 원아들이 식수사업에서도 마땅히 앞장에 서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애국주의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조국땅의 나무

한그루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가꾸는데 자기의 땀과 지성을 바치는 숭고한 정신이라고 하시면서 원아들이 나무 한그루라도 제손으로 심고 정성껏 가꾸는 과정에 **김정일**애국주의를 심장깊이 새길수 있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심고 가꾸는 나무들이 한뽐, 한뽐 자랄 때 원아들의 애국심도 자라게 된다고 하시면서 어릴 때부터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지녀야 앞으로 당이 맡겨준 초소에 가서도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일을 스스로 찾아하는 참된 애국자, 당이 바라는 진짜배기일군이 될수 있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원아들에게 나무는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심어야 사름률을 보장할수 있다고, 식수사업에서 중요한것은 나무를 몇대 심었는가 하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몇대를 살렸는가 하는데 있다고 하나하나 알기 쉽게 가르쳐주시며 구뎅이파기로부터 물주기, 흙다짐에 이르기까지 장시간 나무심기를 직접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심은 나무들의 상태를 하나하나 살펴보시며 모두가 나무심기를 잘했다고, 어른이 되여 이곳을 찾아오면 무성하게 자란 나무를 보며 오늘을 추억하게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울창한 수림속에 자리잡은 만경대혁명학원의 전경을 기쁨속에 바라보시면서 나무들이 꽉 찼다고, 이제는 식수를 할 자리가 없겠다고, 원아들이 금수산태양궁전을 비롯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자욱이 새겨진 곳들에 찾아가 나무를 심게 하라고, 현대적인 제 122 호양묘장도 참관시키고 과학적인 식수방법도 터득시키라고, 만경대의 물과 공기를 마시며 자라는 원아들이 산림복구전투에서 모범이 되라고 당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만경대혁명학원은 그 이름만 들어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체취와 체온이 그대로 안겨오는

위대한 수령님의 학원, 위대한 장군님의 학원이라고, 자신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만경대혁명학원 원아들이 있다고, 그들을 주체혁명위업의 바통을 굳건히 이어나갈수 있도록 정치사상적, 군사기술적, 육체적으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학원의 교육교양사업과 관리운영에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학원의 원아들이 만경대의 아들답게 억세게 자라나 주체혁명위업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2) 창립 70돐을 맞는 만경대혁명학원을 축하방문하시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창립 70돐을 맞는 만경대혁명학원을 축하방문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만경대혁명학원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삼가 인사를 올리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원아들속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바라보시며 건국의 초행길에서 혁명학원을 세워주시고 반세기가 넘는 기나긴 세월 혁명가유자녀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아 나라의 역군으로 키워주신 수령님과 장군님의 거룩한 령도의 자욱을 감회깊이 회고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창립 70돐을 맞이한 학원의 교직원, 원아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그이께서는 만경대혁명학원의 교직원, 학생들이 앞으로도 만경대의 혈통을 굳건히 이어나가며 사회주의위업의 최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언제나 핵심적역할을 다해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새로 일떠세운 혁명사적관과 당의 은정속에 현대적인 교육환경, 과학교육설비들을 훌륭히 갖춘 여러 강의실들, 종합체육관, 수영관을 돌아보시면서 건설정형과 교육실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절세위인들의 손길아래 태여나고 강화발전되여온 만경대혁명학원이 지난 70 년간 위대한 수령님의 학원, 위대한 장군님의 학원으로서의 성격과 본태를 고수하고 빛내이며 당과 혁명에 끝없이 충직한 견실하고 미더운 핵심골간들을 수많이 키워냄으로써 혁명위업계승의 력사에 자랑스러운 행로를 아로새긴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만경대의 물과 공기를 마시며 성장한 학원의 졸업생들이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구마다에서 혁명의 기둥, 핵심골간으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고있는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주체혁명의 대를 이어나갈 골간들, 핵심부대를 키우는 만경대혁명학원의 사명과 임무에 맞게 원아들을 다방면적인 지식을 소유한 혁명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학원의 교육교양사업과 관리운영에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3) 새로 건설된 평양초등학원을 찾으시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교육환경과 생활조건이 최상의 수준에서 그쯘히 갖추어진 평양초등학원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새로 건설된 평양초등학원의 전경을 환한 미소속에 바라보시면서 평양중등학원과 울타리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일떠섰는데 정말 보기 좋다고, 아이들의 동심에 맞게 아기자기하게 건설을 잘했다고, 평양시의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이 지구가 천지개벽되였다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평양초등학원을 바라보느라니 부모없는 아이들을 위해 늘 마음쓰시며 친부모가 되시여 육친의 사랑을 부어주시던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생각이 간절해진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희한하게 건설된 학원을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 보여드리지 못하는것이 정말 안타깝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교사와 기숙사를 비롯한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건설 및 운영준비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평양초등학원의 교사를 현대적이면서도 깨끗하게 건설했다고 하시면서 초등교육단위의 특성에 맞게 모든 교실들을 다기능화, 정보화하였으며 각종 교구비품들도 충분히 갖추어놓았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2 학년 1 반에서 진행하는 국어수업도 참관하시면서 교원의 교수방법과 교편물리용정형, 학생들의 인식능력과 그들이 쓰고있는 교과서와 학습장의 질에 대하여 친어버이심정으로 자세히 알아보시였다.

그이께서는 기숙사를 원아들의 동심에 맞으면서도 그들이 생활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잘 꾸렸다고 하시면서 침실, 식사실, 리발실, 치료실 등 모든것이 마음에 든다고, 식료품창고에 여러가지

기초식품과 당과류, 과일 등이 그득히 쌓여있을뿐만아니라 메주덩이까지 달아놓았는데 볼만 하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온 나라가 원아들을 위한 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돌리고있는것이 우리 사회의 기풍, 사회주의조선의 가풍으로 되였는데 정말 좋은 일이라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초등 및 중등교육의 질이 어떤가에 따라 고등교육을 비롯한 나라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이 규정되며 인재강국화실현의 지름길도 당의 초등 및 중등교육중시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는데 있다고 하시면서 평양초등학원관리운영사업에서 지침으로 되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평양초등학원을 돌아보니 마치 동화세계에 들어갔다 나온것만 같다고, 원아들이 정말 좋아하겠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즐거워진다고 하시면서 원아들이 행복의 보금자리에서 세상에 부럼없이 마음껏 배우며 강성조선의 믿음직한 역군들로 억세게 자라날수 있게 되였다고, 이곳에서 울려퍼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노래소리는 전진하는 사회주의의 힘찬 동음소리라고 격정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부모없는 원아들이 믿고 의지할것은 조선로동당밖에 없는것만큼 평양초등학원의 일군들과 교직원들이 원아들이 설음을 모르고 한점 그늘도 없이 대바르고 씩씩하며 밝고 명랑하게 자라도록 자신의 마음까지 합쳐 잘 돌봐주기를 부탁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이날 평양초등학원, 평양중등학원 원아들과 교직원들, 건설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